

지역 맞춤형 비자 나온다…광주·전남, 해외 인재 유치 길 열려

정부,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 시행…전국 14개 광역 지자체 선정
특정활동 비자·지역 특성 반영…미래자동차 등 전문직종 유학생 유입

광주·전남의 첨단·뿌리산업에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광역 지자체별 수요를 반영한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2일부터 시행함에 따른 것이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진행 상황’ 브리핑을 열고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광주·전남도 등 14개 광역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역형 비자는 법무부와 광역지자체가 지역 수요를 반영해 설계하는 맞춤형 비자다. 정부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광주·전남도는 지역 역점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비자 요건을 제시하는 유학 비자(D-2)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광주·전남도는 특정활동 비자(E-7)의 경우 사업수요 대응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유학 비자를 선택했다. 역점산업에 관련된 분야에 해외유학생들의 비자 조건을 완화시켜 해외 인재의 발길을 지역으로 오게 하겠다는 것이다.

◇광주, AI미래자동차 분야>광주시는 대학의 AI미래자동차 관련 유학생을 유치해 지역 대표 산업인 자동차 분야의 취업 연계를 통해 산업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2023년 11월 기준 광주시의 총인구(145만 7000명) 중 외국인주민(4만 6859명)이 3.2%를 차지하는 점도 고려됐다.

광주 대표산업(모빌리티, 에너지, 반도체, AI 등)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 인력을 고숙련·중간관리자로 양성하고 외국인 유학 졸업생의 정주 강화를 위해 대학과 기업 간 취업 연계 강화, 지역산업과 인재 간의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정으로 광주시는 총 60명의 유학생에게 광역형 비자를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외국 유학생의 경우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연간 1600만원의 재정능력을 인증받아야 하지만 광역형 비자를 받은 외국유학생은 800만원으로 서류자격이 완화된다.

◇전남, 조선·철강·관광산업 분야>전남도 유학 비자 적용 대상은 지역 핵심산업인 조선업과 철강, 관광산업과 화학, 복지 등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해당 전공과 연계한 학과에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 전남도는 광역형 비자가 시작되면 도내 9개 도내 대학에서 유학생을 유치할 계획이다. 목포대와 순천대, 전남대 여수캠퍼스 등 도내 주요 대학들이 참여한다.

전남도의 광역형 비자의 경우 재정능력이 기존 1600만원에서 절반 줄어든 800만원으로 하향되고 또 유학생들의 시간제 취업 허용시간을 최대 30시간으로 확대한다. 요양보호사와 주방장, 조리사와 같은 전문직종의 시간제 취업도 허용된다.

전남도는 단순 유학생 유치에만 머무르지 않고, 유학생들이 전남도내에 취업해 정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학생들에게 지역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유학생과 도내 기업체와의 취업 알선도 할 방침이다. 또 2027년 추진 예정인 ‘전남형 가족이민비자’를 통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도내 유학생은 전국 대비 2% 수준으로 저조한데 도는 유학생 유입으로 도내 취업과 정주까지 이어질 경우 도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내실있는 광역형 비자제도 운영을 위해 성과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광역형 비자 정원 총원율, 사회통합정책 참여율, 불법체류율, 지역 내 외국인주민 구성 비율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비자 할당량을 조정하고, 사업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반도체, 바이오,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최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타입터 비자 제도’도 이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타입터 비자는 세계대학 순위 100위 이내의 국내외 대학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계적인 기업·연구기관에서 경력을 쌓은 외국인이 국내 기업에 고용돼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1억4986만5000원)의 보수를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연간 근로소득이 우리나라 1인당 GNI의 4배 이상(1억9982만원)이면 학력과 경력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타입터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전남대 교수 300여명이 2일 오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내 5·18기념관(용봉관) 앞에서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전력자립률 고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해야”

산자부·국회에 건의안 전달

전남도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서 전기요금을 적게 내도록 하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을 촉구했다.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분산에너지특별법에 따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는데, 전력자립률이 높은 전남도의 경우 타 시도보다 더 저렴한 전기요금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부산시와 인천시, 강원특별자치도, 충남도와 공동으로 2일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안’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작년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 안’이 공개됐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전남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은 지리적 인접성에 근거한 획일적 권역별 기준이 아닌, 발전원으로부터 사용처까지 송배전 비용 등 전력 공급원가 차이가 반영되는 전력자립률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전력자립률이 200%를 넘는다.

이에 전남도를 포함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사·도는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을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 지난달 협약을 완료했다.

5개 사·도가 마련한 공동 건의문은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해소와 수도권으로 향하는 국가 신규 전력망 건설 부담 최소화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 자립률이 높은 지역으

로 이전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담았다.

또 전력자립률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를 공개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사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전남도는 4개 사·도와 협력해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 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반도체, 이차전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 전력 다소비 기업이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종합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핵심과제인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로서 성공적으로 도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프로야구 최고 인기구단은



한국갤럽 조사…삼성·한화·롯데 공동 2위

프로야구 2024시즌 우승팀 KIA 타이거즈가 국내 최고 인기 구단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3월 25일부터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장 좋아하는 국내 프로야구팀을 묻는 문항에서 KIA를 지목한 응답률이 13%로 최다를 기록했다.

KIA에 이어서는 삼성 라이온즈와 한화 이글스, 롯데 자이언츠가 9%로 공동 2위에 올랐다. 2024년 조사에서는 롯데가 10%로 1위였고 KIA(9%), 한화(8%) 순이었다.

올해 예상 우승팀 부문에서는 KIA가 18%로 압도적인 1위에 올랐고, LG 트윈스(7%), 삼성(6%)이 KIA의 대항마가 될 전망이다.

좋아하는 국내의 활동 야구 선수로는 미국프

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소속 이종후가 10%로 1위에 올랐다.

류현진(한화)이 9%, 김도영(KIA) 8%의 응답률을 보였다.

또 국내 프로야구에 대한 관심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는 ‘많이 있다’(17%)와 ‘약간 있다’(18%)를 더해 35%가 나섰고, ‘별로 없다’(23%)와 ‘전혀 없다’(41%)는 64%를 기록했다.

2013년 이후 정규 시즌 개막 무렵 기준 국내 프로야구 관심도는 2014년 48%가 최고였고 2022년 31%가 최저치다. 지난해 39%와 비교하면 올해 소폭 하락했다.

이 조사는 이통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연합뉴스

문체부 ‘예비국제회의지구’에 여수·군산·울산·원주 선정

여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5년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2일 전남도에 따르면 문체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예비 국제회의지구 활성화 지원사업’은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년~2028년)에 따른 것으로, 제회의복합지구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국제회의시설 보유 등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국제회의의 유치 지원금 등 기존 지원에서 소외된 지역을 대상으로 국제회의 개최 역량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수를 포함, 군산·울산·원주 등 4개소를 예비지역으로 확정했다. 전남도와 여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3년간 최대 국비 3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회사분할로 인한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및 이해관계인 이의제출 공고(주권제출공고)

2025년 4월 2일 주주총회에서 본 주식회사 에이스종합건설(이하 “갑”이라 함)의 광양시 광양읍 광양로 905번지(이하 “광양지”)에 대한 분할(가)주식회사 에이스건설(이하 “을”이라 함)을 설립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회사분할계획에 따라 “갑”은 보통주식 206,108주에서 보통주식 191,108주로, 자본금은 금2,061,080,000원에서 금1,911,080,000원으로 감소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갑”의 공사업 사업부인과 관련된 인계의 자산과 부채,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방식으로 “을”에게 승계하며, 공사업 양도(포괄양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 회사분할로 인한 양도양수(포괄양도양수) 및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다음에 표시된 기간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본 회사의 주주들은 동 기간내에 주권을 제출하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 다 음 -

01. 양도대상 공사업의 종류: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전남-01839)
 02. 양도예정일자: 2025년 5월 8일
 03. 이해관계인의 이의(권)제출 예정일: 1) 기 한: 2025년 4월 3일 ~ 2025년 5월 7일 2) 제출처: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05
 04. 양도자 1) 상 호: 주식회사 에이스종합건설 2) 대표이사: 명재정 3) 소 재 지: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05 4) 전화번호: 061-725-9320
 05. 양수자 1) 상 호: (가칭) 주식회사 에이스건설 2) 대표이사: 명재정 3) 소 재 지: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우주로 3155-1
- 2025년 4월 3일
주식회사 에이스종합건설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905
대표이사 명 재 정

光州日報 지국안내

북 구	• 동 광 266-1920 • 동 통 269-1980 • 북광주 525-0761 • 신 민 222-9171 • 영 신 571-7558 • 오 지 266-7601 • 동 통 433-1503 • 우 신 433-1503
동 구	• 남 광 673-8636 • 동 통 222-9054 • 동 부 225-6001 • 동 통 222-9054 • 동 통 222-9171
남 구	• 남 광 673-8636 • 북 통 651-1833 • 북 통 673-8636 • 송 하 675-6605 • 진 통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통 372-2252 • 서광주 369-1625 • 호 천 376-7153 • 지 통 376-6511 • 통 알 603-0311 • 화 통 369-1625
광산구	• 온 남 952-1687 • 월 국 959-1920 • 침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